

사회성 함양을 위한 즉흥무용교육 연구

-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를 중심으로 -

김명선*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결과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전문가들은 미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환경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육격차, 사회성발달 위기 등과 같은 많은 갈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소개하며(교육부, 2022) 현재의 관점에서 미래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는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변화와 진보의 흐름으로 가득하며, 이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요구사항은 우리가 가진 '사회성'을 기반하여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력, 정직과 책임, 소통과 공감, 창조적 도전과 열정 등의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OECD, 2019; 차성현, 2012). 사회성(Sociality)은 바람직한 사회생활과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요구되는 능력으로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해나갈 수 있는 개인의 소질이나 능력을 의미한다(박선희, 2017). 이에 있어, 인류의 발전과 함께 교육은 그 목적과 방식에 있어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예측 불가능한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를 함께 극복하는 관점에서 개인의 발전만이 아닌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OECD, 2019).

과거에는 지식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반해 인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역량(Competenc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OECD, 2019). 그렇기에 교육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이전의 교육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고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변화의 흐름을 탐색하고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장주희, 한상근, 이지연, 서용석, 2011)고 주장하며, 사회성이 더욱이 중요하다는 것을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용학과 박사과정, skqldi1644@skku.edu

말한다. 다시 말해 인간의 내면적 가치를 깨닫고 실천 의지로 이행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의 의무이며 기대이며(황정옥, 2013), 공동 미래를 위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 즉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을 지원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변혁적 역량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이 가져야할 주된 역량의 지향하는 점을 ‘새로운 가치 창조하기(Creating New Value), 긴장과 딜레마에 조정하기(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책임감 갖기(Taking Responsibility)’ 세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미래사회에서도 예측 불가한 양상의 문제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상호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인간사회에서 ‘긴장과 딜레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소하는 능력은 개인과 사회의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임을 설명하고 있다(OECD, 2019; 최수진, 2019). 다시 말해, 양립이 불가할 것 같은 요구들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미래 교육에 더욱 중요해짐을 이야기하며, 삶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하나의 답이 아닌 타인과 협력하여 예측 불가한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함을 말한다. 즉, 이는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목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을 이야기한다(최수진, 2019).

이에 있어 무용교육 또한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 가능한 역량 및 환경,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세를 지닌 포용성과 사회성을 겸비한 인간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핵심역량이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화와 급속도로 발달하는 미래 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임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p. 143). 무용에서의 사회성은 개인이 무용 활동을 통하여 집단성원이 공통으로 가지는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하는 무용집단의 공동원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자영, 2011, p. 7). 변혁적 역량이 대두되기 이전에도 무용교육에서 사회성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홍혜전, 2020; 노정식, 2017; 이진선, 2015; 원세정, 2013; 정윤영, 2013; 최재희, 2013; 김자영, 2011). 이러한 이념은 기술 위주의 무용보다 무용 속에 담겨있는 삶의 형식을 배우고 사회성을 겸비하여 공동 미래를 위한 무용교육의 이해를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성을 위한 무용교육에서 대상은 주로 초등학생이었으며, 특히 ‘표현력’,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흥무용은 자발성, 상상력, 창의성 신장이라는 측면에서의 차원 높은 교육방법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김화숙, 2007, p. 3), 이를 통해 창의성, 책임감, 협력, 공감, 신뢰, 융통성(OECD, 2019, pp. 25-31)과 같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는 비판성을 갖춘 예술 형태로, 정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회에서는 다양성과 인간 감성에 대한 이해가 점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있어 즉흥무용은 학습자에게 감정적 경험을 통한 자아 인식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며, 이는 사회적으로 열린 마음을 키우고 공감과 관용하는 태도를 기반한 협력과 이해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즉흥무용교육은 ‘나’를 기반으로 예측 불가한 상황 안에서 새로운 사고 방식을 열어줌으로써 자신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고 새롭고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과정 안에서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갈등)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는 안무적으로 표현 및 창의성만이 아닌 ‘책임감, 협력, 공감, 융통성’과 같은 공동체를 위한 태도를 기르는데 장려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는 단

순한 교육만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변혁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즉흥 무용 교육이 사회성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변혁적 역량은 급변하는 사회 안에서 공동체를 위한 ‘창의성(Creativity), 책임감(Responsibility), 협력(Cooperation), 공감(Empathy), 신뢰(Trust), 융통성(Adaptability)’과 같은 사회성을 강조(OECD, 2019, pp. 25-31)하며 학생들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동시에 즉흥무용에서도 학문적인 학습 외에도 위와 같은 사회성을 겸비하여 보다 폭넓은 역량을 함양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변혁적 역량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즉흥무용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있어, 두 분야가 갖는 공통된 목표와 상호작용이 어떻게 학생들의 교육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교육체계가 학생들을 미래에 대비한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연구문제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즉흥무용교육의 학습내용 및 교수방법은 무엇인가?’, ‘변혁적 역량으로서 긴장과 딜레마 조정은 어떻게 가능한가?’이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문헌연구로 변혁적 역량 중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와 ‘즉흥무용’ 및 ‘사회성’과 관련된 문헌고찰 및 분석을 통해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동체를 중요히 여길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교육의 매개로서 즉흥무용 교육의 학습내용 및 방법과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의 특성을 살핀 후,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살펴봄에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변혁적 역량(Transformative Competencies)은 1997년 부터 수행된 DeSeCo 프로젝트에서 한계점을 느끼고 재정의 된 연구인 OECD 2030 교육 프로젝트에서 제안되었다. 교육은 ‘지식’ 기반 교육에서 ‘역량’ 기반 교육으로 변화되어 왔고, 평가방식도 그 과정에 맞추어 변화되어 왔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는 변혁적 역량이 교육의 결과보다 과정 측면에 초점을 두 면서 웰빙(Well-being)을 목적으로 삶의 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성장을 추구하는 역량으로 보고 이를 교육의 전면(이인화, 2022)에 내세운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서는 회복력이 있고, 변혁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OECD, 2018). 그래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의 변혁적 역량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잡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식, 기술, 태도 및 가치를 활용하는 능력(OECD, 2019)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전 세계적인 것을 아울러 적용되며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을 제시해준다. 변혁적 역량이 발휘되면 세 가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Creating New Value)’, 두 번째는 ‘책임감을 가지는 것(Taking Responsibility)’, 세 번째는 ‘긴장이나 딜레마에 대처할 수 있는 것(Reconciling Tensions and Dilemmas)’이다(OECD, 2018).

이에 있어, 세계의 상호의존성이 점차 강해짐에 따라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긴장과 딜레마’를 다루는 능력이 요구된다(최수진, 2019, p. 59). 효율성과 민주적 과정, 형평성과 자유, 자율성과 연대, 변혁성과 지속성, 다양성과 보편성 등과 같이 모순적이고 성립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요구들 간에 수평을 맞추는 것이 미래 교육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또한 이 역량은 모든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도 다른 목표, 주장, 관심 및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현실적 기대에 의해 구성되며, 이러한 갈등은 살면서 점점 흔한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OECD, 2019). 이처럼 상충하는 많은 요구 안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일은 정해진 하나의 답을 찾는 방법으로만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즉, 미래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며 변화하는 것과 예측 불가능한 것에 직면했을 때 보다 준비성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겉으로보기에 양립 불가능해 보이거나 모순적인 논리, 아이디어, 관점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긴장 관계에 있는 경쟁적인 아이디어에 직면할 때,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최수진, 2019, p. 60).

이러한 과정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주장을 보충하며, 반대 의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긴장과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과 같이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표와 기회를 제시한다. 사회적 인간은 ‘사회성’을 갖춘 인간을 뜻하며, ‘사회성’은 서구의 어원으로 보면 ‘결합하다’의 뜻을 가졌으며 결합하는 인간으로서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또한 심리학 사전에 의하면 사회성은 ‘개체(인간)가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살면서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서 오는 욕구 또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며 여러 형태의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화가 된다(김자영, 2011). 사회화란 개인으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공인되는 언어, 사고, 행동의 제 양식을 학습하게 하여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인간’이 되는 교육 과정을 의미한다(OECD, 2019, pp. 20-22).

사회적 학습 혹은 역할의 학습이 요구되는 사회화 과정은 평생을 통해 지속되는데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 가치관, 인성, 태도, 동기 등 행동이나 성향의 변화과정을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즉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점차 폭넓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고 인간관계를 확대하고 심화하여 사회 속에서 상호의존하려는 동시에 개인적으로 자립하여 사회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서승덕, 2002). 또한 사회성을 성격의 한 특성으로 기술하고 이 특성은 대인관계 및 사회관계에서 사교성, 근거성, 협동성, 친절성, 사회적 의존성, 모방성, 소통성, 용이성, 대인 순응성, 관용성 등을 포함하며 고립, 사회적 접촉의 회피, 방관, 비사교성, 비활동적 성격과 반대되는 특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이상로, 1986), 사회성은 각 개인의 지각에 따른 동기나 행동에서 나타나며, 특히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박경수, 1993).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누구나 어떤 환경에 의해 형성된 사회성을 갖고 타인과 관계를 이어가며 살아간다. 다시 말해, 사회성이란 개인에게 내면화 되어있는 사회의 지식, 가치관 등이 환경에 의해 후천적으로 학습되지만, 향후 사회적 행위가 근본적으로 역할이 되는 것으로 교육에 있어 인간을 사회적 및 정서적 존재로 인지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안에서 변혁적 역량 중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사회성을 함양한 인간으

로서 성장을 돕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에 있어, OECD(2019, pp. 25-31)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갖춰야 하는 ‘긴장과 갈등 조정하기’와 관련된 핵심 역량을 ‘창의성(Creativity), 책임감(Responsibility), 협력(Cooperation), 공감(Empathy), 신뢰(Trust), 융통성(Adaptability)’으로 총 6가지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역량

역량	의미
창의성	자신의 독창적인 관점으로 타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근본적으로 새로운 통찰력이나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며, 자신과 타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또한 개인적인 표현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문화와 경험의 여러 가능성과 제약을 반영하여 함께 상호작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갈등과 딜레마를 다루는데 필수적이다.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하는 의무나 임무를 중요히 여길 수 있는 역량이다.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이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즉 윤리적 의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공동체 내에서 실용적 관점, 윤리적 관점, 개인적 관점에서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함께 하고 상황에 맞는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을 책임감이라 할 수 있으며 긴장과 갈등을 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협력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공동과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동료간의 격려와 긍정적인 상호의존을 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는 서로를 돕기 위한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자 상호간 협력하고 함께하는 의도와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공감	타인의 감정과 의미를 자각하고 포용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상호간 신뢰를 촉진시키며 결속을 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게 하는 역량이다.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는 일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자의 견해에 공감하고 존중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신뢰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수 요소이자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요한 믿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역량이다. 이는 사회적 자본에 기여하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과 협력하는 것에 굉장히 연관되어있다. 또한, 공유된 사회적, 문화적 자원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윤리적, 규범적 요소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기에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과 갈등과 문제에 노출 될 수 있는 많은 사회적 맥락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갱신하는 역량은 공동체 속에서 탄력성, 혁신 및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융통성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량이다. 이는 예상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하였을 때 다른 관점에서 쟁점을 들여다 보고 관점의 차이가 긴장과 딜레마를 어떻게 일으키는 지 이해하기 위해 급변하는 상황의 요구에 따라 기능, 관점, 지식을 증후적으로 전환하고 재구성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며 긴장 및 딜레마를 다루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2. 즉흥무용

예술교육으로서 무용교육의 실체는 과정의 중요성에 있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작품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과정 자체에 중시한 교육에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라 할 수있다. 이와 같이, 무용교육은 전문무용수 양성에 중점을 맞춰 실기 중점의 기술을 향상하는 교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협동적인 학습전략 하에서 새로운 무용 교수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창의성, 책임감, 협력, 공감, 신뢰, 융통성 등과 같은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발달(윤미정, 2005)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무용교육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환경에서 포용력 및 창의성을 겸비한 전인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22). 하지만 기존 무용교육은 사회적

전에 필요한 개인적 능력 발달에 편중되어 왔으며, 이는 경제적 수단으로써의 가치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정연희, 2011). 그러나 무용교육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하며 요구하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성을 겸비할 수 있는 무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무용교육을 통해 개인이 내재하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여 공동의 목표로서의 미래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길을 열어주는 교육이 될 것이다. 더불어 인간의 총체성과 함께 지적, 정서적, 신체적을 기반한 사회적인 발달을 통해 문화적, 예술적, 미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현 시대의 무용교육이야말로 오늘날 요구되는 사회성 교육의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다. 사회성은 예술교육에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무용분야에서는 즉흥무용교육을 통해 보다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김화숙,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즉흥무용을 주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순간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이며, 정확한 답이 있는 움직임이 아니고 형식과 테크닉의 기술을 통하지 않은 상태이다(신하라, 2017). 이렇듯 즉흥은 정해진 움직임의 틀에서 벗어나 그 순간 과정 안에서의 자기 기분과 느낌, 사상 등이 자유로운 표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선빈, 2013). 또한 Winearls(1970)는 즉흥을 ‘어떤 자극에 대해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즉각적 반응을 할 때 생기는 것’이라 하였으며, Turner(1971)는 ‘특정 자극에 의해 다면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즉흥과 같은 무용교육을 통하여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남에게 표출하게 됨으로써 아름다운 정서의 공감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며 더 나아가 남에게 즐거움을 주고 아름다운 표현에 의한 인간의 미의식이 사회성을 높여준다(박아름, 2010).

이와 같이 즉흥무용은 자극적인 표현, 창조, 연기를 하지 않거나 지적으로 억제하지 않고 내재된 의식으로부터 ‘자신’을 표출하여 자각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즉흥무용의 많은 정의를 기반으로 ‘자신’을 넘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공존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공동체 작업으로 과정 안에서 타인과 예측 불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개인의 선택 뿐만 아닌 타인을 대하는 태도와 대인관계에 대한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울 수 있다(윤미정, 2005).

또한 무용즉흥을 통해 통찰력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자유롭게 탐색하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유연한 사고를 요하는 문제제시 및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탐색 및 발견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를 융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는 학습내용이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련될 때 학습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므로, 생활중심의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호기심과 상상력 등 각자의 창의적인 생각들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진영은, 2003). 모든 활동에 있어서 동기 부여와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능력, 예기치 못한 문제에 기꺼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등을 증진시켜 흥미 유발을 통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되어 신체움직임으로 표출될 수 있다(김자영, 2011). 이와 같이 무용교육이 공동 미래를 위한 사회성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즉흥무용 수업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하는(OECD, 2019)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무용수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연관적용뿐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지적인 자각과 타인의 이해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과 타인, 공간과 시간적 요소를 함양할 수 있는 조이스 모르겐로스(Joyce Morgenroth)의 즉흥무용 교육법(1987)을 적용해보고자 한다. <표 2>는 즉흥무용 프로그램으로 ‘준비단계(Warmup)’, ‘공간’, ‘시간’, ‘움직임의 창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수록되었으며, 다양한 수준과 크기의 집단들에게 어떤 것이 적합할 것인지 제시해준다. 또한 내용과 방법을 채택할 때,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역량에 도움이 되는 기준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성을 위해 채택된 수업 방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비단계’에서는 ‘모방(Mirroring)’, ‘통일(Unison)’, ‘능동과 수동(Active and Passive)’의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모방’과 ‘통일’은 공통적으로 개별적인 창의성 및 인지능력을 훈련하는 데 필수적이기에 함께 볼 수 있다. 그 다음 ‘공간(Space)’ 단계에서는 ‘이동패턴(Floor patterns)’, ‘거리(Distance)’, ‘자세와 연속자세(Shape and shape sequences)’의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한다. 그 다음 ‘시간(Time)’ 단계는 ‘비운율적 리듬(Nonmetrical rhythms)’의 내용 및 방법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움직임 창안(Movement invention)’ 단계는 상상력 및 창의성을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추상성의 단계(Levels of Abstraction), 기분과 성격(Mood and charater)’의 내용 및 방법으로 이루어진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표 2> 즉흥무용 교육법

구성	방법/내용
준비단계	모방, 통일, 능동과 수동
공간	이동패턴, 거리, 자세와 연속자세
시간	비운율적 리듬
움직임 창안	추상성의 단계, 기분과 성격

III. 연구 결과

변혁적 역량으로서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는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아이디어나 논리와 입장 사이의 연관성을 고려하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행동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에서 상반되는 입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기 입장대변을 통해 긴장과 딜레마를 해소하는 실용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복잡성과 모호함에 익숙해져야 하며, 공감 능력과 존중에 기반한 역량이 필요하며, 이는 결국 사회성을 함양한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목표와 기회를 제시한다(OECD, 2019).

이러한 방향은 무용교육에서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변혁을 새롭게 시도하는 것뿐 아니라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의견의 충돌과 조절이 가능한 사회성 함양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무용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무용교육에서도 신체적인 기량도 중요하지만, 신체를 통해 사회를 알고, 이해하고, 배우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변혁적 역량의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를 통해 사회성을 함양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있어 OECD(2019)는 사회성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긴장과 갈등 조정하기’의 관점에서 핵심 역량을 ‘창의성, 책임감, 협력, 공감, 신뢰, 융통성’으로 총 6가지를 제시하였다. 그렇기에 이러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Morgenroth(1987)의 즉흥무용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기반으로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역량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가 <표 3>과 같이 도출되었다.

<표 3>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무용교육

준비단계	방법/내용	모방, 통일, 능동과 수동
	사회성 요소	협력, 신뢰, 창의성
공간	방법/내용	이동패턴, 거리, 자세와 연속자세
	사회성 요소	협력, 융통성, 창의성
시간	방법/내용	비운율적 리듬
	사회성 요소	책임감, 공감
움직임 창안	방법/내용	추상성의 단계, 기분과 성격
	사회성 요소	창의성, 공감

1. 준비단계

즉흥무용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하지만, 즉흥무용을 하는 데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무용수들은 즉흥행위의 과정 속에서 집중하기 그리고 서로 보는 것에 등에 익숙해져야 한다. 이는 ‘모방하기(Mirroring)와 ‘통일(Unison)’의 향에서 훈련이 가능하다. 특히 그룹 공동작업에서의 경우, 개별적인 창의성보다 다른 사람들과 연관된 작업을 위해 자신의 창의성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는 공동작업에 대한 흥미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감에서 함께 비롯되며 ‘협력’과 ‘신뢰’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으며, ‘능동과 수동’의 향은 이런 기초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준비단계’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신체적인 부분과 기억력, 상상력, 모방능력 등을 이끌어냄으로써 ‘신뢰’와 ‘창의성’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더불어 즉흥무용에 필요한 마음과 같이 정신적인 부분도 준비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며 움직여나가는 마음과 자세가 사회적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낼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가. 모방과 통일: 협력, 신뢰

‘모방’은 즉흥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그림자와 같이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간단한 형태의 모방하기이며, 이는 그룹 즉흥의 필수적인 기술들을 유도한다. 움직임을 인지하고 이를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정확히 모방하기에서 개발되고, 순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상대방의 움직임과 일치해야하는 당위성에서 나오며, 주의를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향상이 된다. 본 단계에서는 모든 섬세한 동작까지 모

방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관찰하고 반응하는 이런 기술들이 즉흥의 첫 걸음이 되어, 추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움직여도 어느 순간이든 진행되는 모든 것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는 ‘모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함께 수행하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타인과 상호의존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인 ‘협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이는 서로 움직임을 따라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자발적 및 함께하는 의도와 태도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은 모방하기와 유사하지만 더 균형을 중심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기에, 다소 개별적인 모방보다는 더 근원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통일은 시선을 상대방과 주변으로 향하게 하며, 서로가 그룹의 리더가 되어 통일된 움직임이 끊임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빠르고 간단하게 리더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신뢰’가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배려 및 관찰을 반복하면서 서로가 믿게 되는 순간이 오면 그룹이 통일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이는 결국 사회성 중 누군가 혹은 그 어떠한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우도록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모방과 통일의 즉흥무용 방법 및 내용을 통해 협력하는 자세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능동과 수동: 신뢰, 창의성

집단으로 즉흥무용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신체적 특성과 동작을 진행하는 모든 부분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가져야만 한다. 그렇기에 ‘능동과 수동’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두려워해서는 안되며, 접촉이 어떻게 하면 신중할 수 있고 그 접촉을 통해 어떻게 움직임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다. 다시 말해, 누군가의 신체와 가까워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신뢰’가 있어야 하며, 신뢰가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서로 배려하는 방법을 통해 믿음을 쌓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반응이 발전하여 움직임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예를 들어, 서로가 접촉했을 때, 서로의 균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에 서로의 움직임을 느끼고 의도를 파악하면서 이에 맞춰 자신의 움직임을 조절하고 반응하는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다. 더 나아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신체와 경계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기에 서로의 신체적 한계와 감정을 이해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임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관찰하고 그 순간 일어나는 행위에 움직임으로 반응할 때 나타나는 창의성을 주고 받는 실질적인 준비단계이다. 이처럼 서로 능동과 수동적인 역할을 번갈아가면서 맡으며 움직임의 자극을 주고 받으며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다시 말해, 능동적인 역할은 수동적인 역할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같은 신체부위가 아닌 서로 다른 신체를 사용하여 자극을 주고 받으면서 모방을 넘어 자신이 선택을 시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능동과 수동의 역할을 하면서 예기치 못한 순간을 경험하며 타인의 움직임을 배우며 개인의 창의성 또한 함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신체부위를 상대방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으며, 상대방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에 맞춰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익숙함에서 벗어나 다른 관점에서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반응들이 서로에게 자극과 영향을 주고 이를 통해 더 복잡하고 독창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며,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렇기에 능동과 수동의 단계를 통해 신뢰 및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2.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눈으로 접하는 세계인 ‘공간’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지각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영역으로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반면, 무용은 이를 의식적으로 이용한다. 공간 단계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호학적인 접근을 통해 신체 인식과 제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배우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이는 ‘이동패턴(Floor Patterns)’, ‘거리(Distance)’, ‘자세와 연속자세(Shape and Shape Sequence)’의 세 가지의 방법 및 내용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협력’, ‘책임감’,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공간 단계는 그룹 무용즉흥 내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리고, 서로의 신체를 인지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그룹 즉흥무용을 통해 공간을 이용하고 인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어떠한 혼잡한 상황이라도 서로의 공간을 확보하여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신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융통성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더불어 주어진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변형하면서 이동패턴을 발견하고, 타인과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상상력 촉진을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가. 이동패턴: 협력

‘이동패턴’의 항에서는 사람들이 공간을 다니면서 만들어 내는 이동패턴은 미리 계획된 것이거나 혹은 직관된 것일 수 있으며,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관된 패턴은 협력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에 ‘협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이동 패턴을 배우면서 주어진 공간을 보다 자세히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동 패턴을 통해 어떻게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로 실현함으로써 공간 감각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즉, 이동패턴은 그룹 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며, 이동패턴을 학습하면서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과 협력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예를 들어, 각자의 움직임과 위치를 조율하고 조화롭게 흘러가기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또한 이동 패턴을 배우면서 주어진 공간을 적절히 분배하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으며, 이는 서로의 위치를 고려하고 춤을 추는 동안 공간을 공유하면서 충돌을 피하고 협력하여 움직일 수 있다.

그렇기에 본 항에서 움직임을 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동패턴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빠르게 반응하고 그에 맞는 움직임 및 위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호간 협력하고 함께 하는 의도와 태도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작업장치들을 제공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과 상호의존하며 ‘협력’하는 방법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나. 거리: 융통성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과의 거리가 그 상황에서 적당한지 파악한다. 넓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사람들의 몸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인다. 반면에 낯선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그들은 뒤로 물러난다. ‘거리’의 항에서는 무용에서 사람들간의 공간적 관계가 상징적일 경우 그들은 상대방과의 거리가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룹에서 만들어내는 효과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운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즉, 거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맞게 거리를 조절하는 법을 익힐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떨어져서 움직여야 하는 선택을 하면서 주어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좁은 공간이나 큰 그룹이 모이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이 필요한 공간을 미리 생각하여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선택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적 요구에 따라 지식, 기능, 관점을 사용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융통성’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다. 자세와 연속자세: 창의성

‘자세와 연속자세’의 항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모든 자세를 인지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타인의 신체가 취하는 자세에 유의함으로써 이를 리듬과 함께 정해진 시간 내에 연관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자세에 움직임을 추가시킴으로써, 움직임 창안의 풍부한 재료를 얻게 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예를 들어, 어떤 자세는 감정이나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어떤 자세가 춤의 흐름과 어울리는지 등을 발견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타인의 다채로운 자세와 연속자세를 탐구하고 관찰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타인을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표현하는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움직임도 조정하면서 서로를 보고 유연하게 결정을 내리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즉,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자세와 연속자세를 만들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내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3. 시간

‘시간’의 항에서 에드윈 덴비(Edwin Denby)의 말에 의해 우리가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언급하였고, 시간은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주기적인 박동이나 리듬 혹은 시간을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우리는 시간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리듬과의 관계는 볼 수 없는 감정과의 관

계나 외부 및 내면 세계의 관계와도 같다. 이러한 ‘시간’을 다루는 즉흥은 리듬상의 기술과 시간 형상화의 인식을 발전시킨다. 즉 기본기술을 훈련하고 숙달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움직임을 리듬과 연결하는 기초가 되기도 하며, 그룹 안에서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사회성을 기르기 위함을 초점으로 선별한 방법 및 내용은 ‘비운율적 리듬(Nonmetrical Rhythms)’이 있으며, 이를 통해 ‘책임감’, ‘공감’의 역량을 기를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가. 비운율적 리듬: 책임감 및 공감

‘비운율적 리듬’의 향에서는 모든 움직임은 각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일상의 움직임 속에서 상대방의 리듬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이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서로 공감을 느낄 때 상대방의 리듬을 모방하고, 갈등을 느낄 때는 그 리듬을 저항하는 등 반응을 일으킨다. 모든 무용의 움직임이 운율적인 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움직임들의 고유한 리듬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이러한 비운율적 리듬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을 기반으로 표현하기에 책임감 및 공감 역량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그룹 즉흥을 하면서 각자의 움직임을 책임지고 그룹의 일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관리 및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절 능력을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룹 내 협력이 강화되고, 각자가 그룹의 성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또한 그룹 간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동작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상호작용이 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고유의 리듬과 경험을 나누면서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그렇기에 공동체에서 함께하기 위한 ‘책임감’ 및 ‘공감’의 역량을 동시에 필요로 하며 함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4. 움직임 창안

그룹 즉흥에서는 구성하고 창안하는 과정을 통합한다.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성요소를 보완하기 위해서 ‘움직임 창안’의 향에서는 창의성에 초점을 맞춰 방법 및 내용을 구성한다. 이는 성격묘사와 같은 모방 요소에서부터 주제와 변형 같은 추상적인 요소에 이르기까지 창의적인 움직임을 발견하는 실마리를 발견하도록 도와준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그렇기에 본 향에서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 및 내용을 ‘추상성의 단계(Levels of Abstraction)’, ‘기분과 성격(Mood and Character)’, ‘시선의 유형(Types of Focus)’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의성’과 ‘공감’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고 도출되었다.

가. 추상성의 단계: 창의성

모든 무용은 추상적이거나 모방적이거나 상관없이 잘 짜여진 구조에 의해 지탱된다. 또한 어떤 무용이든 신체로 표출하기에 인간의 움직임을 표현한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추상성의 단계’에서는 익숙한 동작 및 움직임들을 소재로 하여 추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무용수에게 사실적 움직임에 미치는 영향 뿐만 아니라 추상적 움직임 안에 내재하고 있는 표현 요소에 대해 살필 수 있는 것을 제시한다. 즉,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사실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을 실제로 구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예를 들어, 추상성의 단계를 배우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익히는데, 이는 각자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추상적 개념을 탐색하고, 이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음악이나 상대방의 움직임, 공간 및 시간의 변화 등 다양한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각자의 아이디어가 결합되고 상호작용되면서 더 복잡하고 창의적인 형태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개념을 연결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발견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확장시킬 수 있어 창의성을 발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 기분과 성격: 공감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본인의 감정을 움직임과 더불어 자신의 기분과 성격을 나타내는 데에도 많이 이용한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들이 우리의 몸과 움직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즉, 신체와 정신의 관계에 근거하여 신체를 변화시킴으로써 감정을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움직임을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본 항에서 배울 수 있다(Morgenroth, 1987; Morgenroth 저, 김귀자 역, 1995).

예를 들어, 기분과 성격을 배우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감정과 성격을 탐구하고 이해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이들의 감정과 성격을 이해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개인적 경험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서로 다른 성격과 기분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도와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다. 즉,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공감하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룹 간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된다.

IV. 결론

OECD는 교육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한 부분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OECD, 2019)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필요로 하기에 기존에 정형화된 것에서 탈피해 또 다른 면을 마주치게 될 때 이질적이고, 어색하고, 낯설어 하는 등의 부정적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최근 산업화 및 세계화의 영향에 의해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협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에 양립하기 어려운 관점과 서로 대립되는 경우를 더 많이 겪게 된다(문영철, 2003).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을 깨고 새롭게 변혁을 시도하는 것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의견 대립의 조율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무용교육 또한 개인의 성장을 돕고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기 위한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 예술교육으로서 성장을 돕고 발전을 이끄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즉흥무용은 사회성 함양을 위한 변혁적 역량을 갖추는 데에 매우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충되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개인의 의견 속에 숨어 있는 관점과 논리와 함께 상대방의 관점까지 깊이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양측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또 다른 관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무용교육으로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무용교육은 사회성 증진을 위해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의 ‘창의성, 책임감, 협력, 공감, 신뢰, 융통성’과 같은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역량은 변혁적 역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미래와 꼭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으며, 무용교육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동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찾아가는 것과 같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즉흥무용을 통해 긴장과 딜레마를 조정하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공감과 존중을 배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책임감 있고 창의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이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무용교육의 이론적 기반과 실제 교육 방법을 풍부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렇기에 향후 개편될 교육과정 내에서 이러한 점을 관심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끊임없이 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지닌 사회성을 겸비한 인간으로서 성장시킬 수 있는 무용교육에 대한 더 많은 연구 및 논의되길 기대한다. 또한 이는 기초 연구이기에 향후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성 발달의 가치를 두어 신체적, 감성적, 사회적, 문화적, 인지적 능력을 조화롭게 개발하는 무용교육의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성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자를 위해 교수방법도 탐구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이상로(1986). *청년발달 심리학*. 세광출판사.
- 진영은(2003).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학지사.
- Morgenroth, J.(1995). *즉흥무용 교육법* (김귀자 역). 현대미학사. (원저출판 1987).
- Morgenroth, J.(1987). *Dance Improvisation*.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Turner, M.(1971). *New dance: Approaches to nonliteral choreograph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Wallas, G.(1962). *The art of thought*. Hatcourt, Brace.
- 박아름(2010). *무용교육참여가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경수(1993). *청소년 단체 활동과 사회성 형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서승덕(2002). *인성교육을 위한 적응활동 프로그램의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미정(2005). *소매틱 차원에서 본 접촉즉흥무용의 의미와 기능*.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선빈(2003). *창의력 향상을 위한 초등 즉흥무용 수업 경험*.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화숙(2007). 창의성과 즉흥무용 교육의 관계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 18(2), 5-18.
- 김자영(2011). 무용즉흥을 통한 초등학생의 사회성, 교우관계, 학교생활만족도 변화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22(2), 189-215.
- 노정식(2017). 무용활동참가 아동의 욕구충족과 사회성 및 또래 관계와의 관계검증. *한국무용과학회*, 34(1), 13-24.
- 문영철(2003). 무용수업 적용을 위한 협동학습 모형의 탐색. *대한무용학회*, 35, 87-102.
- 원세정(2013). 사회과학분야: 중학생의 학교 무용수업 참여경험이 자신감과 사회성 및 자아실현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 30(3), 47-65.
- 이재기(2023). 변혁적 역량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국어교육의 접근법 탐색. *청람어문교육*, 96, 7-56.
- 이진선(2015). 초등학생의 무용 활동 참여가 사회성,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학회*, 15(1), 39-48.
- 정연희(2011). 예술교육을 통한 지속가능성 사고의 확장. *미술과 교육*, 12(1), 51-71.
- 정윤영(2013). 사회과학분야: 대안학교 학생들의 무용참여가 자기효능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과학회*, 30(3), 107-121.
- 최재희(2013). 초등무용수업 참여만족이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예술학회*, 45(6), 133-153.
- 황정옥(2013). 커뮤니티댄스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실천적 의미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24(1), 55-71.
- 신하라(2017). 즉흥무용을 통한 다문화 무용교육의 개선안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28(1), 81-99.
- 이인화(2022). OECD 변혁적 역량과 국어과 교육내용의 연계성 연구 -변혁적 역량 하위요소와 국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간 매핑(mapping)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학회*, 177, 1-30.

- 홍혜전(2020). 장애무용교육프로그램 참여가 발달장애아동의 문제행동과 사회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한국무용학회**, 20(1), 1-11.
- 교육부(2022. 12. 22). “예술교육 선택 과목 교육과정 2022-33호 [별책 22]”.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lev=0&statusYN=W&s=moe&m=0404&opType=N&boardSeq=93458>, 2024. 02. 20>.
- 차성현(2012. 12. 31). “사회성 및 감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8736>, 2024. 03. 27>.
- 최수진(2019. 12. 31).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 전략 탐색”.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2767>, 2024. 03. 20>.
- 장주희, 한상근, 이지연, 서용석(2011. 10. 31). “2030 미래의 직업생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s://krivet.re.kr/ku/da/kuBAAVw.jsp?gn=E1-E120130056>, 2024. 03. 21>.
- OECD(2018). “The OECD Learning Framework 2030”. **OECD**. <<https://www.oecd.org/education/2030/learning-framework-2030.htm/>, 2024. 03. 21>.
-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conceptual learning framework, 2030 Transformative competencies for 2030”. **OECD**.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 2024. 03. 21>.
- OECD(2019). OECD Learning Compass 2030: A Series of Concept Notes. **OECD**. <<https://www.oecd.org/education/2030-project/teaching-and-learning/learning/all-concept-notes/>, 2024. 03. 21>.

논문투고일 2024. 05. 15.
심사일 2024. 05. 25.
심사완료일 2024. 06. 05.

A Study on Dance Improvisation Education to Cultivate Sociality

– Focus on 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

Kim, Myeong Seon

Doctoral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tential of improvisational dance education in cultivating sociality through transformative capabilities as a foundational research. In doing so, it aims to investigate how common goals and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fields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udents' education, and ultimately to examine whether the education system can foster individuals into talented students ready for the future. Drawing on the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e OECD's (2019) '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 and Morgenroth's (1987) improvisational dance education method, this study indicates that dance education can develop six competencies for sociality: creativity, responsibility, cooperation, empathy, trust, and adaptability.

Therefore, it is significant in exploring the possibilities of dance education to foster who can respond to the constantly changing future society and live together with communities, and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systematizing it.

Keywords: Transformative Competencies(변혁적 역량), Reconciling Tensions & Dilemmas(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sociality(사회성), Dance Education(무용교육), Dance improvisation(즉흥무용)